

<b>배포일시</b>	2021. 1. 15.(금) 16:00 (총 6매)	<b>보도시점</b>	<b>즉 시</b>
<b>담당부서</b>	예보국 예보분석팀	<b>담당자</b>	팀장 김성목 예보분석관 우진규
		<b>전화번호</b>	02-2181-0606

## 월요일 출근길 많은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
- 17일(일) 오후~18일(월) 오후 사이 중부지방 많은 눈
  - 경기동부, 강원도(동해안 제외), 충북북부 최대 15cm 이상
  - 17일 밤~18일 오전 강한 눈, 눈길·빙판길 조심
- 주말(16~17일) 또 다시 강추위, 강풍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
  - 중부지방 중심 아침 최저기온 -10℃ 이하
  - 수도권·계량기 동파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



[ 1월 17일(일) 오후 예상기압계 모식도 ]

-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이번 주말(16~17일)동안 전국적인 강추위가 찾아오고 17일(일) 오후~18일(월)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 특히, 18일은 출근 시간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많으며 **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**을 당부했다.

## [ 기압계 전망 ]

- 기상청은 16(토)~18일(월)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서쪽의 온난한 공기가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다. 이 과정에서 눈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**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**이라는 설명이다.
  - 15일(금) 밤부터 몽골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강하게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, 찬 공기와 따뜻한 해상 사이에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    - 이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북서해안과 전남권서부, 제주도는 17일 새벽~오전, 울릉도·독도는 16일 낮~17일 새벽에 눈이 내리겠다.
    - ※ 울릉도·독도, 제주도산지: 5~10cm(많은 곳 울릉도·독도 15cm 이상)  
전북서해안, 전남권서부, 제주도(산지 제외): 1~5cm
  - 17일(일) 오후~18일(월)에 찬 공기의 유입이 약해지면서 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겠고, 이 따뜻한 공기가 기존(15일 밤~17일 오전)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발달하겠다.
  - 특히, 18일 오전에는 북서쪽에서부터 유입되는 찬 공기에 의해 눈 구름대가 더욱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- 이러한 기압계 변화가 짧은 기간에 이뤄지면서 16~18일은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, 기상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.

## [ 17일 오후~18일 눈 전망 ]

- 17일(일) 오후~18일(월)에 중부지방(강원동해안 제외)과 전북, 경북내륙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.
  - 17일 오후부터 서쪽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들면서 해상의 눈 구름대가 충남서해안으로 유입되고, 밤에 수도권과 강원영서·충청북부·경북내륙으로 확대되겠다.
  - 18일 오전에 북서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여 충청남부와 전북에도 눈이 내리겠고,
  - 눈 구름대가 동쪽으로 느리게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은 낮, 중부 서쪽 지역은 오후,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밤에 눈이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.
  
- 특히, 17일 밤~18일 오전에 강한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눈 구름대가 더욱 발달하는 경기동부와 강원도(동해안 제외),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했다.
  - 기상청 예보관은 “월요일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리거나, 밤부터 쌓여있던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지역이 많겠다.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### <예상 적설, 17일 오후(15시)~18일 오후(18시)>

- 경기동부, 강원도(동해안 제외), 충북북부: 5~10cm, 많은 곳 15cm 이상
- 수도권(경기동부 제외), 충남권, 충북남부, 전북내륙, 경북북부: 2~7cm

- 또한, 기상청은 “최근 들어 우리나라 주변의 기온 변화가 평년보다 큰 상황”이라며, 매우 차가운 공기가 지배한 상황에서 온난한 공기가 불어드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강한 눈 구름대가 자주 발달하고 있다고 밝혔다.
  
- 17~18일에도 1.5km 상공의 온난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눈의 양이 많아지고, 바람이 지형에 부딪히는 곳을 중심으로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 사이에서도 눈의 강도와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.
  
- 특히, 18일 새벽~낮에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강도에 따라 눈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말에 계속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통해 최신의 예상적설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.

## [ 추위 전망 ]

- 1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16일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15일보다 5~10℃가량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**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,**
  
- 찬 공기의 유입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서도 주말 동안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운 곳이 많겠다고 밝혔다.
  - 특히, 16일 아침에는 중부지방이 -5℃ 이하, 남부지방이 0℃ 이하에 머물렀고, 17일 아침에는 복사냉각이 강한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기온이 -15℃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였다.
  - 또한, 16~17일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℃가량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.
  
- 18일(월)은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밤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한 차례 더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20일(수) 오전까지도 아침 최저기온이 -10℃ 이하로 떨어져 추울 것으로 전망하면서,
  - 수도권과 계랑기를 보온재로 감싸는 등 동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.

## [ 강풍과 풍랑 전망 ]

- (강풍)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, 16일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도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(초속 10~18m, 시속 35~65km)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.

  - 그 밖의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도 강한 바람(초속 8~14m, 시속 30~50km)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,
  - 찬 공기의 유입이 다소 약해짐에 따라 17일 오후~18일 오전에 바람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겠지만 이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며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20일까지도 강풍피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.

- (풍랑) 15일 오후에 서해면바다와 동해 면바다, 16~17일은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~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하였다.

  - 또한, 17일 오후에 서해상, 18일 오전에 동해상에서 물결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지겠지만 이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질 수 있겠다며 해상안전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.